

취재환경 변화에 따른 기자의 정보추구행태 연구

A Study on Newspaper Reporters' Information-Seeking Patterns

장 선 화(Seon-Hwa Jang)*

목 차

- | | |
|-------------------|--------------------|
| 1. 서 론 | 3. 1 연구 문제 |
| 2. 이론적 배경 | 3. 2 연구 방법 |
| 2. 1 직업적 맥락의 정보이용 | 4. 연구결과 |
| 2. 2 기자의 자질과 정보이용 | 4. 1 집단간 정보원 활용 차이 |
| 2. 3 인터넷활용과 취재 | 4. 2 정보추구행태의 변화 |
| 3. 연구 방법 | 5.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점점 개방되고 있는 취재환경 변화에 따른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를 경력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앙 일간지 및 인터넷 신문에 근무하는 15년 이상의 간부기자 9명과 10년 미만의 평기자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자들이 활용하는 정보원이 비공개된 정보에서 공개된 정보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부기자는 인맥을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중요한 취재는 비공개된 사석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반면 평기자는 공개된 정보 수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비공개적인 취재보다는 전문성과 분석력을 갖추야 취재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d information-gathering environment of these days has indeed changed the patterns of reporters in their information seeking efforts.

For the study, two groups of reporters were surveyed. The first group consists of 9 senior-level reporters working for daily papers with 15 years or more of journalism career, the second group 11 junior reporters who have been in the industry for less than 10 years.

The surveying of these reporters has indicated significant change in their patterns of information-seeking endeavor, the dominant trend changing from reporters' putting an emphasis on off-the record types of information through person-to-person contacts to their new focus on made-public information. The senior-level reporters, identify person-to-person contacts as most valuable sources for information and take meetings with their contacts as providing critical opportunities for information-gathering.

On the other hand, this examination has found junior reporters to be spending more time in collecting made-public information and paying more attention to acquiring a higher level of professionalism and greater analytical abilities. In short, this study confirms the ever-rising importance of making available a wider range of information for reporters.

키워드: 신문 기자, 정보추구행태, 취재행태, 인적 정보원, 공개정보, 분석력

Media Reporters, Journalism,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f-the Record Types of Information, Made-Public Information

* 서울경제신문사 기자. 문화레저부(india@sed.co.kr)

논문접수일자 2005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9월 14일

1. 서론

기자(journalist)는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 정보의 생산자라는 측면에서 전문가의 정보추구행태 연구영역에서 중요한 연구대상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자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며 이를 다시 가공하여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이다. 메이커(2001)의 주장에 따르면 기자는 사회 현실을 여과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의 중심에 서 있다. 뉴스 게이트키퍼로서 기자는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며 일상의 업무이다.

한국의 현대 정치변천사로 미루어 볼 때 1960년대 당시 군사정권이 집권한 이후 기자의 취재행태는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적인 관행에 의존해 왔으며 이들의 정보원은 대부분 인맥에 의존해 왔다. 사실판단과 빠른 보도라는 기자 업무의 본질보다는 권력과의 유착으로 새로운 언론권력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한 인맥중심의 관행적인 취재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국내기자의 정보행태는 기자를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온 미국, 영국 등 서구지역 저널리스트의 정보추구행태연구와는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즉,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전문가 집단의 정보추구행태는 측정과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고 인맥이나 관행에서 비롯된 정보추구행태는 통계, 관찰 등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개방화되고 민주화되어 가면서 기자의 취재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터넷이다. 1990년 후반기부터

인터넷은 하나의 매스 미디어로 등장하였다.

인터넷의 성장은 상호 작용성, 즉시성, 속보성 증가, 개인화 등의 특성에 힘입어 일반 독자들을 단순한 미디어의 수용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뉴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적인 발전도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포털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를 방증한다.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은 각종 신문 기사는 물론 공영방송인 KBS의 뉴스까지 공급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관문이 아닌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의 역할로 그 영역이 커지고 있다(기자협회보 2005.8.24). 외부 환경의 변화는 일방적으로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고 제공해 온 기존 한국 언론의 위상과 역할에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이 기사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변화를 가속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과거처럼 더 이상 정보가 권력인 시대는 지나갔다. 특히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과 정부의 방침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고 있고, 인터넷포털, 온라인 신문,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원한다면 정보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기기를 쉽게 이용하면서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직접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취재 환경의 변화는 기자로 하여금 더 이상 신속한 사실 전달을 위한 첨병역할보다는 전문적인 취재와 심층 분석된 고급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문기자들이 변화되고 있는 취재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소수에 의해 정보가 유통되었던 폐쇄적인 시대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방화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 처한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자들의 정보이용과 정보추구행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직업적 맥락의 정보이용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자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그 이유는 인맥중심의 취재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의 관행으로 언론사에서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이는 다른 전문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공개된 정보의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기자들의 정보추구 및 정보추구행태가 정보전문가들의 연구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복희(2003)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용자 연구 논문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용자연구의 연구주제별 분포를 보면 '이용자 연구'는 매년 두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직업을 주제로 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된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는 중요한 연구영역 중 하나이다.

해외연구의 경우 기자들의 정보추구와 이용을 다룬 연구는 직업적인 특성과 실제적인 정보이용보다는 정보원 중심의 연구 경향을 보이고 있다. 케이스(2002)는 직업이란 정보추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보

고 과학자와 기술자, 인문과학자, 경영자, 저널리스트, 변호사 등으로 구분하였다. 뉴스보도라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정보추구의 맥락에서 연구하기에 기자라는 직업은 매력적인 직업이다(케이스 2002, 260). 기자들의 정보탐색과 평가는 사람과 문헌과 직접관찰 등 다양한 정보의 탐색과 평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론인을 정보추구의 직업적인 연구에서 하나의 독립된 직업군으로 구분한 데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세상의 사건들을 체계화하면서 매일 수많은 정보를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내는 기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Nicholas(1997)는 기자들의 정보추구와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에서 기자들의 취재행태를 분석한 후 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Nicholas는 업무환경에 컴퓨터가 도입됨에 따라 젊은 기자와 중견기자들 간의 업무처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취재원과 기자들 간의 면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기자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다양한 정보 중에서 선별하고 이를 보도하게 되는 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사의 도서관은 마치 보험과 같은 존재로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Nicholas(1997)는 덧붙였다.

한편 기자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최근 연구는 업무와 정보의 상관관계 즉, 맥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가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ffield, Blandford, Dowell(2003)은 정보추구라는 것은 진공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을 바탕으로 정보추구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의 분석과 합성을 거쳐 새로운 뉴스를 생산해내는 반복되는 저널리스트의 업무적인 맥락에서 정보를 추구하는 관점을 독창성(originality), 기사가치(newsworthiness), 취재를 위한 대응(correspondence) 등 세가지로 설명하였다. 이는 정보원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업무 과정에서 기자의 정보추구행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인지적인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뉴스는 사실성과 구체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기사작성을 위한 취재에 앞서 기자가 기사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어느 경우에도 과거의 적합성(past suitability), 생산성(productivity), 신뢰성(reliability), 성실성(trustworthiness), 권위 확보(authoritativeness), 명료성(articulateness)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이재경 2003). 결과적으로 기사 작성에 있어 취재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관행에서 기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교류와 취재방향에 관한 상호확인과 그 과정을 통한 기자들의 기사 접근 시각의 통합과 단일화 등은 취재 기자들의 집단행동 양태를 보여준다.

Attfield와 Dowell(2002)은 신문기자들의 정보 추구행태 연구에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기자들이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맥락에서 정보를 추구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들은 서베이(survey), 연결(chaining), 모니터링(monitering), 훑어보기(browsing), 구분(distinguishing), 필터링(filtering), 발췌(extracting), 마무리(ending) 등 여덟가지 업무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보를 추구하는 특성을 설명하였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다시 뉴스를 만들어내는 기자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과 달리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선호한다(Campbell 1998). 이는 Elihu Katz(1989)가 주장한 것과 같이 저널리즘에서 이론이란 사람, 사회, 사건, 뉴스 그 자체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질의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초보적이라는 견해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원은 취재 분야의 전문가들 즉, 인적 자원이다. 새로운 정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수집한다. 기자들은 사내에 도서관이 있더라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공개된 정보보다는 자신이 개척한 취재원 즉, 인적 정보원을 중심으로 취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ampbell(1998)은 저널리스트들의 인적 정보원을 내외부로 구분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내부적으로는 기자들의 동료들이 중요한 인적 정보원이 되며 외부적으로는 사건의 피의자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집단이 가장 중요한 인적 정보원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2. 2 기자의 자질과 정보이용

서정우(2002)는 고전적 의미에서 기자의 자질과 현대적인 의미의 기자자질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기자 자질을 여덟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1>과 같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호기심이 충족될 때까지 꾸준하고 참을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끈기를 기자의 중요한 자질로 손꼽았다. 세 번째는 발로 뛰어야 하는 취재의 특성상 근면이며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공정성이 네 번째 덕목이다. 다섯 번째는 권력과 금력의

〈표 1〉 고전적/ 현대적 의미로 구분해 본 기자의 자질

구분	자질	특 성
고전적 의미	호기심	취재분야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흥미와 관심을 갖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노력
	끈질김	시간이 걸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자세
	근면	현장을 방문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사를 작성하려는 노력
	공정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취재원의 사상이나 학벌, 출신배경 등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자세
	용기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된 보도를 위해 신념을 굽히지 않으려는 자세
	사교성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취재원의 호감과 신뢰감을 얻으려는 노력
	정직성	취재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떳떳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
	표현력	논리적인 표현능력을 통해 뉴스기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현대적 의미	국제화	모든 사물을 폭넓은 국제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정보화	다양한 정보화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전문화	취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이해와 분석능력
	분석력	정보화와 전문화를 바탕으로 사건을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협박이나 회유에 대항하여 자신의 소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필수적이다. 또한 많은 취재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교성과 정직한 취재를 위한 정직성 마지막으로 취재한 내용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 위한 표현력 또한 중요한 자질이다.

현대적인 의미의 기자 자질로는 국제화, 정보화, 전문화, 분석력을 강조하였다. 국제화는 외환위기 당시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만을 보도해 경제 낙관론을 퍼왔던 언론은 모든 사물을 폭넓은 국제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자질로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는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취재의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정보화시대에 기자의 역할은 무수하게 널린 방대한 정보를 찾아서 정리하고 진실 여부를 가려주며 의미를 부여하는 항해사(navigator)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분석력은 정보화, 전문화와 더불어 현대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기자의 자질로 인정받고 있다. 뉴스 소비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뉴스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분석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ampbell(1997)은 기자들에게 정보는 포기하기 싫은 힘이라고 하였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언론의 권력화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취재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한국의 언론 주위의 변화는 혁신이라고 할 만큼 격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시대, 한국의 언론은 탄압과 회유에 의해 당대의 정권과 유착하여 사실보도가 불가능한 채 중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통로역할을 해 왔다. 당시 독자는 정부가 발표하고 기자들이 이를 전달하는 일방적인 방식의 언론을 통해 뉴스를 수용해 왔다. 정부의 언론 탄압과 회유책으로 기자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데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정부 부처에는 이른바 기자단이라는 명목으로 선별된 기자들로 취재를 제한해 왔다. 이러한 환

경적인 요인에 의해 과거 한국의 기자들은 인맥에 의한 관행적이고 폐쇄적인 취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기자들의 관행적 취재와 정보추구행태는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여 전문성을 추구하는 엔지니어와 의학분야 전문가들의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한 Ellis와 Haugan(1997)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기자들은 공개된 정보활용보다는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을 통한 비공개 정보의 발굴에 주력하는 정보추구행태를 보여 왔다.

국내 기자들의 폐쇄된 정보추구행태는 정부 및 기업이 출입기자들을 제한하는 기자단 제도로 발전해 왔다. 출입처 제도는 동일한 기자에 의한 취재활동으로 자칫 상황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특히 간부급 직원들에게는 기관의 고위층과 주로 교류하는 기자들과의 돈독한 관계 유지를 통해 업무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상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취재를 위한 기자배치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와 달리 사적인 친분관계와 인맥형성에 활용되어 왔던 것이 출입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서정우(2002)는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을 기자들의 취재경쟁을 유발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담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하였다. 또 박동숙, 조하연, 홍주현(2001)은 한국 언론의 주요 관행 중 하나인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에서 이들은 한국 언론

의 관행상 기자들의 우월의식과 언론의 권력을 뒤에 업고 취재원에게 필요 이상의 힘을 행사하는 언론의 모습을 기자들의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관행적인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는 것을 정부부처 출입 기자들과 출입처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뉴스는 건축물이나 제품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은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뉴스를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은 복잡하다. 기자들은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특정 사안을 평가하고 기사가치를 따진 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거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면담자를 선정한 후 집중적인 취재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수순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 내부에서도 관행적인 취재보다는 기획탐사보도의 가치가 점점 평가받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획 탐사보도를 통한 특종이 기자들 사이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설명한다. 99년 AP 통신 서울 지국의 최상훈 기자가 보도한 한국전쟁 동안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노근리 사건의 추적보도는 한국인 최초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한국언론 100년 사상 획기적인 일이다. 그의 취재는 기자가 기존의 관행적인 취재행태에 안주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미국 정부기록청(NARA) 등

〈표 2〉 10년간 취재보도와 기획보도의 한국기자상 수상 건수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취재보도	4	3	5	4	4	4	4	3	4	3	3
기획보도	3	1	-	3	3	3	4	3	4	3	4

공공기관의 공개된 문서 검색과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한 심층 보도로 한국 기자들의 취재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 <표 2>¹⁾에서와 같이 한국 기자상 수상 내역 중 취재보도와 기획보도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00년 이후 취재보도 보다는 기획보도와 탐사보도 중심으로 그 무게가 옮겨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기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탐사, 분석기사의 보도 능력의 필요성은 단순히 수집된 정보 중 기사가치를 판단의 근거로 한 편집보도가 아니라 보다 분석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한 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는 감춰져 왔던 사건의 폭로라는 과거의 관행적 취재행태에서 벗어나 보다 깊은 지식으로 무장하고 분석이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인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기자들 스스로 변화된 정보추구행태를 확인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3 인터넷 활용과 취재

정보기술의 꽃으로 불리는 인터넷의 등장함에 따라 기자들의 취재관행과 정보추구행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기술이 본격적으로 취재에 적용되면서 컴퓨터 활용취재(Computer Assisted Reporting)가 새로운 취재기법으로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컴퓨터를 활용한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추광영 1998; 박현수, 양경식, 김현수 2004; Garrison 1995; Garrison 1997). 그러나 국내 기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사승(2003)은 주요 일간지 신문사의 현장 취재기자와 편집국 간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포커스 그룹 토론을 거쳐 인터넷이 신문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자들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간부들은 인터넷이 기자들의 취재행태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취재기자들은 반대로 인터넷이 취재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

<표 3> 변화하는 취재환경 비교

1960년대~1990년대	1990년대 이후
폐쇄적	개방적
낮 근무 시간 중 공식적인 취재보다 저녁시간 비공개적인 취재가 더 중요	기자실 개방, 미국식 브리핑제 도입 등 공식적인 취재가 일반화 됨
권력과 유착	여론 중시
권언유착에 의한 언론기업 특혜 누림	특혜 줄고 공정보도 요청수준 높아짐
신문의 품질은 특종보도에 의해 결정됨	사회 가치의 다양화로 심층보도에 주력
기사송고와 작송에 원고지·팩스 등 이용	인터넷, 이동통신 등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 활용 일반화
독자는 수동적으로 신문보도 수용	인터넷 활용으로 독자가 능동적으로 보도 가능

1) 한국기자협회(www.journalist.or.kr)에서 매년 수상하는 '한국 기자상'의 10년간 수상 내역을 정리하였다.

다. 이는 Nicholas(1997)의 연구 결과와 같이 젊은 기자일수록 인터넷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의 취재 환경은 <표 3>에서와 같이 바뀌고 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두고 권언유착의 상징이었던 기자단이 사라지면서 한국 언론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였다. 기자단 제도는 한국 언론의 과거 비정상적인 취재 행태를 대변해 왔다(이선민 2004.6.14). 2003년, 참여정부는 출범초기 대언론 정책과 관련해 브리핑제 전환을 발표하고 문화부가 가장 먼저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원칙을 제시하였다. 당시 이창동 장관이 발표한 원칙은 개방, 공평, 정보공개라는 3대 원칙을 뼈대로 브리핑제도 시행, 출입기자제의 등록제 전환 취재의 범위 및 방법, 언론접촉 방법 언론오보에 대한 대응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차정인 2005.2.2).

이러한 변화는 기자들 중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춘추관의 변화는 브리핑룸 제도 도입에 따른 출입기자 수가 증가하여 언론사만 출입하던 시대에서 일정한 요건만 되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특정 언론사들의 정보독점시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출입기자수가 참여정부 전에는 9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5월 현재 350명에 달한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김신용 2005.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²⁾의 개정으로 필요한 경우

누구나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취재 환경의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영국, 미국 등의 주요 언론사는 뉴스 도서관(News Library)을 내부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저널리스트들에게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lliams와 Nicholas(1998)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주요 언론사의 도서관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FT)에서 제공하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인 FT Profile을 취재 기자들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온라인 뉴스 DB인 넥시스(NEXIS), 로이터(REUTERS), 텍스트라인(TEXTLINE), 다이얼로그(Dialog), 비즈니스 브리핑(Business Briefing) 등 전문DB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언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스 도서관의 역할은 일선 취재 기자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개발보다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기자들의 보도행태와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고전적인 기자의 자질보다

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 1996년 제정된 후 2004. 개정되었다.

는 현대적인 기자의 자질이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취재환경의 변혁은 기자들의 취재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과거 관행에 의한 취재에 의존적이었던 시절 일선에서 취재했던 기자들과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 된 이후의 기자들 즉, 경력이 짧은 기자들 간에 정보추구행태가 어떻게 다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기존 매체 특히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신문 기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취재환경에 따라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가 바뀌고 있는가?
- 2) 경력에 따라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에 차이가 있는가?

3.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의 접근이 가능했던 문화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중앙일간지에서 근무하는 20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국장급을 비롯해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 부장, 차장 등 경력 10년 이상의 기자들(이하 간부기자)과 경력 10년 이하의 평기자들(이하 평기자)로 크게 두 집단으

로 구분하여 이들의 정보추구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10년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데는 국내 인터넷의 보급이 1995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경력을 기준으로 한 두 집단의 구분을 통해 패쇄적인 기자단 시대와 개방화 시대의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기자의 소속부서는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국제부, 생활부 등 편집국 내 주요 부서를 망라하고 있다. 심층면담 대상자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심층면담은 2005년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대상자가 속한 신문의 편집국과 대상자의 출입처 기자실 등에서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별 면담 시간은 30분에서 75분이었다. 심층인터뷰는 정보화가 취재 활동에 미치는 영향,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정보의 형식과 이용행태, 인터넷이 취재와 보도에 미치는 영향, 취재환경 변화에 따른 기자의 자질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개방형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 앞서 면담자들에게 취재환경의 변화가 정보추구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면담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왔다.

4. 연구결과

4. 1 집단간 정보원활용 차이

분석결과 취재환경 변화에 따라 간부기자 집단과 평기자 집단의 정보추구행태에는 큰 차이

〈표 4〉 심층면담대상자의 분포

면담대상자		소속 언론사	집중 취재 분야	경력	인원
경력 10년 이하의 평기자	A	전문 일간지(경제지)	정치	5	11명
	B	전문일간지	산업/대기업	6	
	C	종합일간지	문화/영화	3	
	D	온라인신문	금융	6	
	E	전문일간지(경제지)	증권	5	
	F	전문일간지(경제지)	국제	6	
	G	종합일간지	사회	2	
	H	종합일간지	산업	4	
	I	종합일간지	산업/생활, 유통	6	
	J	온라인신문	정보기술	4	
	K	전문일간지(경제지)	정보기술	5	
차장급 이상 간부급 기자	A	전문 일간지(경제지)	스포츠/골프	16	9명
	B	종합일간지	사회/사건사고	18	
	C	전문 일간지(경제지)	금융	18	
	D	종합일간지	산업/유통	17	
	E	종합일간지	문화	16	
	F	전문일간지(경제지)	산업/자동차	17	
	G	온라인신문	정치	15	
	H	전문 일간지(경제지)	증권	19	
	I	전문일간지(경제지)	정치	20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간부 기자들은 인맥 중심의 취재방법과 이를 통한 정보수집이 기사가치 판단과 취재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취재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던 반면, 평기자들은 인맥 중심의 관행적인 취재행태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기자 집단은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을 갖추어야 경쟁력 있는 기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이용의 일반화와 기자단제도를 손꼽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의 일반화는 기자들의 게이트키퍼로서 정보전달자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공개된 다양한 정보와 이를 분석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부부처와 대기업

이 활용하고 있는 기자단제도가 일부는 브리핑제도 등으로 바뀜에 따라 인맥을 통한 관행적인 취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변화의 요인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인터넷 도입과 기자단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기자들의 취재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속도와 취재방식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평기자 집단과 간부급 기자들 간의 인식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부국장은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여유가 있었다. 지금처럼 시간에 쫓기지는 않았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곧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볼 수가 있을 정도가 되었다. 사실 이제는 전달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신문기사는 이미 구문이 되어버리기가 쉽다”(간부기자 I)고 말했다. 인터넷의 실시간 업데이트는 뉴스 제작의 시간적인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카스텔스(2004)가 지적한 무시간성을 현실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무시간성의 인터넷 속도가 취재를 위한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서 두 집단간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스크를 담당하는 간부급 기자들은 신문뉴스의 내용양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일선 취재기자들은 취재행태와 정보추구행태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한 부장은 “신문이 인터넷보다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인터넷 뉴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신속성 때문일 것이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빨리 기사를 볼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간부기자 F).

간부급 기자의 이러한 인식은 뉴스 생산의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기 어려운 신문에 대하여 인터넷의 속도가 기사작성 태도와 내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일선 취재기자들에게 인터넷은 취재거리를 찾는 등 과거와 다른 정보추구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취재기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인터넷의 영향은 인터넷을 취재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취재의 효율성이다. 이들은 취재의 효율성이 인터넷의 접근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인터넷은 기존의 취재원과 다른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선배들은 저녁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다보면 의

외로 중요한 기사거리를 얻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인맥에 의한 취재에 한계가 있다. 정부 부처는 브리핑제도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진작 기자들은 담당자와 대화하기도 힘들다. 대기업의 경우는 보안을 이유로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사람 만나기도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 인맥을 쌓는 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은 잘만 활용하면 특종도 취재할 수 있다. 정부가 이제는 시시콜콜한 보고서까지 모두 인터넷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신청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 공개된 보고서들에서 의외의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단독 취재 후 보도를 한 경험도 있다. 심지어는 정부의 회의기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과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등록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보고서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훑쳐오던 문서들이었다. 인터넷에서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기사를 발굴하면 출입처에서 기자를 다시 평가한다(평기자 K).

골프담당기자인 나로서는 취재 전체 과정의 40%를 인터넷에 의존하는 편이다. 특히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골프사이트에는 다양한 정보가 많아서 국내 대회가 없을 때에는 해외 사이트 서핑을 해서 기사거리를 자주 발굴한다(간부기자 A).

인터넷 취재는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의존도가 높은 곳은 국제부라는 것이 기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국제부는 다른 부서와 달리 인맥에 의한 취재보다는

공개된 해외 정보에 의존도가 높았다. 이들은 다른 부서 기자들과 달리 전문DB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 국제부 기자는 “블룸버그 온라인에는 주식시황 그래프와 관련 기사를 제공해 주식시황의 변화 시기에 발생하는 사건들과 관련된 뉴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평기자 F).

국제부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특종을 취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우리 회사에서도 IMF 홈페이지를 훑어보다가 IMF가 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정책 관리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료를 우연하게 발견하고 기사를 써서 언론재단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적이 있다(평기자 F).

평기자 집단은 인터넷 취재를 통해 시간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온라인 신문의 인터넷 취재가 전통적인 신문기자들의 취재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신문의 경우 인터넷 활용은 기본이다. 기사가 실시간으로 등록되어 취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터넷 활용으로 취재시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한다. 또 인터넷을 활용하여 취재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인다. 이제는 정부부처 사이트를 보면 어디에 들어가면 어떤 정보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올 정도이다(평기자 D).

기자단 제도에 대한 의견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부기자

집단은 취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맥을 통한 사실 확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간부기자 집단 중 정치부 중 정당이나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의 경우 기자단 제도를 통한 취재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간부기자 C).

취재기자시절 아침에 재정경제부로 출입하면 장관실, 차관실 그리고 국장 사무실을 한바퀴 돌면서 장관 일정과 부처의 당일 행사를 확인하는 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국장과의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이야기하기도 쉬워진다. 이런 관계가 유지된 후 취재할 일이 생기면 쉽게 전화도 할 수 있고 고급 정보도 많이 구할 수 있다(간부기자 F).

반면 평기자 집단은 기자단 제도의 문제점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제도가 정착되면서 더 이상 취재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문서를 찾아서 관련 민간단체를 먼저 취재한 후 역으로 정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연락하는 방법이 오히려 정보를 확인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예전보다 기자들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인간적인 친밀도가 더 이상 취재에 도움이 안된다(평기자 A).

4. 2 정보추구행태의 변화

개방적인 사회로 바뀌면서 기자들 스스로도 과거 인맥 중심의 취재관행이 일반적이었던 고전적인 자질보다는 전문성, 국제성 등 현대적인 자질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간부기자들은 여전히 인맥중심의 취재가 가장 중요하며 좀 더 고급 정보를 입수하기위해서 기자는 전통적인 인맥관리가 취재의 핵심이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중요한 사안은 저녁 술자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라고 해서 단순히 술을 마시기위한 자리는 아니다. 공식적인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보다 저녁에 만나면 다소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편안해진다. 그러다보면 서로 경계도 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도 많다. 때로는 취재원 측에서 언론에 먼저 귀뜸하기 위해 저녁자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간부기자 F).

반면 평기자들의 취재관행은 사적인 자리에서 얻는 비공개 정보보다는 공개된 정보 수집에 관심이 더 많았다. 인터넷 검색의 효율성도 강조하였다.

업무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시간은 더 없다.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굳이 출입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더라도 고급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오히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의 효과적인 입수방법을 배우고 싶다(평기자 J).

정보가 집약된 사이트를 많이 알고 있다면 좀 더 빨리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원처리 게시판 등에서 의외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데 지금 알고 있는 곳은 청와대 민원 게시판 정도가

전부이다. 그 밖에는 잘 모른다. 또 기업평가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 DB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용방법을 잘 모른다. 이러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안다면 정보수집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평기자 H).

취재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간 인식하는 전문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기자 집단의 경우 전문성은 업무처리에 대한 이해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평기자 집단은 취재 분야에 대한 지식의 전문성으로 간부기자들과 그 의견을 달리하였다.

과거 인맥 중심의 취재가 일반적이었을 때에도 전문성은 필요하였다. 전문성이라는 것이 미분, 적분 같은 그런 식의 전문지식이 아니다. 기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전문가적인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그 업계의 전반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날씨가 더우면 어떤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는지. 추운 겨울에도 다른 아이스크림은 판매고가 떨어지는데 왜 특정 아이스크림은 잘 팔리는 지 등등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다(간부기자 D).

예전에는 지금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다. 인맥에 의한 정보취재가 대부분이었다.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많았다. 사람들과의 인맥이나 학연이 있으면 출입처 사람들과 더 깊이 친해진다. 저녁에 사적인 술자리에서 만나고 다음날 출입처에서 만나서 질문하면 예전보다 더 이야기 잘 해주

고 또 그러다가 어깨너머로 보고서에 있는 중요한 몇 단어 건져가서 데스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취재한 경험도 있다(간부기자 B).

인터넷과는 더 이상 시간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는다. 남들이 모르는 영역을 파고들어 기사를 발굴해야 하니까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부동산 분야는 다른 취재 분야보다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강남이 블루칩이고 판교가면 성공할 줄은 누구나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를 쓰는 기자는 많지 않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취재해서 전문가 기자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위 소지자 혹은 부동산분야에서 일을 하고 온 사람들과 2~3년에 한번씩 취재 분야를 순환하는 기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설명을 더 쉽게 할 수 있다(평기자 E).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감춰진 사실을 폭로하는 기사보다는 정확한 사실(fact)과 분석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가 평가받는다. 취재원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과 전문성을 합쳐야 신문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평기자 I).

간부기자 집단은 인맥을 쌓은 후 이들을 통해 전문지식을 입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취재관행이었다면 평기자 집단은 전문지식이 있는 기자들이 오히려 깊이있는 인맥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취재하다보면 그 분야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다. 전문지식과 함께 인맥의 깊이에서 차이가 더 벌어진다. 2~3년에 한번씩 취재 분야가 바뀌는 기자들은 언젠가는 떠난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이다. 전문지식이 있는 기자들과 경쟁이 안된다. 이들은 취재분야의 인맥을 구축하는 마음자세부터 다르다(평기자 G).

간부기자 집단이 주로 활용하였던 공개 정보는 대부분 스크랩한 기사와 출입처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가 대부분이었다. 간부기자는 종이 형태의 기사 스크랩을 선호하였으며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아날로그식이었다. 간부기자들은 자신이 쓴 기사가 보도된 후 신문을 보고 걸려오는 전화의 통화 횟수로 기사에 대한 여론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취재환경에 익숙한 평기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이미 보도된 기사들을 검색하고, 민감한 사안인 경우 자신의 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고 여론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평기자들은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 파일형태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에 필요한 기사 스크랩도 컴퓨터에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갈수록 기자들의 정보행태는 디지털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평기자 집단은 공개된 정보의 수집기법과 수집한 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활용 교육의 필요성(평기자 C)도 언급하였다.

인터넷 검색기술도 좀 더 알았으면 한다. 지금은 하이퍼링크된 사이트를 통해서만 경로를 이동하다보니 정보를 입수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입수한 정보가 쌓일수록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시장정보관련 수치나 관련분야의 통계정보 등이다. 예전에는 분명히 갖고 있었던 자료인데 일일이 저장하지 않으니깐, 급하면 다시 찾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있으면 급한 기사 작성하는 데 순발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런 정보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평기자 G).

선배기자들은 왜 스크랩 안하냐고 말한다. 그런데 그 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에 다 있는데 구태여 종으로 스크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또 출입처의 웹서버에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정리되어있는 데 구태여 내 컴퓨터에 다시 옮겨놓아야 할 필요가 없다(평기자 C).

평기자들에게 더 이상 관행중심의 전통적인 취재기법은 기자들의 자질향상이나 궁극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성과 분석력이 향후 기자들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기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자들이 공개된 정보의 활용기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 론

기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 중 취재원과의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원칙이 중요하게 손꼽힌다. 너무 가까우면 취재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워질 수가 있고, 반대로 너

무 관계가 소원하면 고급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만큼 지금까지 기자들이 인물 중심의 정보원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취재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한국의 언론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었고, 경제발전의 효과로 거대 기업화되면서 언론사 스스로가 본래의 기능을 약화시켰다(조상호 1999, 19). 정권과 결탁하여 정부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신 언론 스스로가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변해 객관적인 보도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에는 신문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던 만큼 인맥을 통한 취재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성이나 시스템화 된 취재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보원 활용이라는 정보추구행태를 답습하여왔다. 결국 당시 기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리 폭로와 고발을 위한 비공개된 정보의 취재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취재환경의 변화가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경력의 간부기자 집단과 10년 미만의 평기자 집단의 취재과정에서 나타난 정보추구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중앙일간지와 온라인 매체에 근무하는 기자들 중 9명의 간부기자들과 11명의 평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이용의 일반화를 기점으로 과거 인맥 중심의 관행적인 취재행태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간부기자 집단은 취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맥이며, 중요한 취재는 대부분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면대면 취재나 공개된 자료보다는 비공개된 사석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10년 미만의 평가자 집단은 인맥을 통한 취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평가자 집단은 취재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분석력을 갖추어 취재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적인 취재가 신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서정우(2000)가 제시한 현대적인 기자의 자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기자들 스스로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넓어졌으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보도가 일반화되면서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은 속도전과 정보전달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방화시대의 취재행태의 변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자들은 인터넷 활용을 통한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뉴스를 발굴해 나가게 된다.

심층 면담의 분석결과 간부기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가자들의 비편 정보추구행태 중 두드러지는 부분은 공개된 정보수집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은 공개된 정보 활용기법과 인터넷 활용기술과 컴퓨터에 쌓이는 디지털 형태의 자

료관리를 해결하는 노하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변화된 취재환경에 따라 평가자 집단은 보다 공개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변하지 않아도 취재가 가능했던 권위주의적인 정보추구행태를 유지해왔던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내부적인 큰 변화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향후 공개된 정보의 활용과 분석을 통한 단독보도 혹은 특종의 가능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취재환경은 인식하고 있지만 기자들 스스로 평가하는 정보기술이나 인터넷 활용 능력의 수준은 대체로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말해주듯이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가 비공개된 자료에서 공개된 자료로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기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언론집단의 내부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시스템적이며 체계화 된 취재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언론인들도 전문적인 정보서비스가 필요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확대는 물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관리 교육 지원과 취재활동에 적합한 새로운 정보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언론계에도 정보전문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김사승. 2003. 인터넷이 신문 저널리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연구: 신문저

널리즘의 취재보도활동 차원에서. 『한국언론학보』, 47(1): 56-80.

- 『기자협회보』, 2005. '1호 기자' 위상 갈수록 멀어져-비서실동 개방 등 취재시스템 개선 요구. 1월 1일.
- 『기자협회보』, 2005. 취재 까다롭고 정보도 없어. 출입처탐방 - 문화관광부. 2월 2일
- 『기자협회보』, 2005. '공룡포털' 공영방송 뉴스도 삼키나, 8월 24일.
- 메이커, 슈. 최재완역. 2001. 『케이트키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미디어 오늘』, 2004. 기자단 폐지 한국 언론의 혁명. 6월 14일.
- 박동숙, 조하연, 홍주현. 2001. 공적업무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고리: 출입처에서의 취재원과 기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언론학보』, 45(특별호): 367-397.
- 박현수, 양경식, 김현수. 2004. 컴퓨터 활용취재의 사용도가 만족도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기술과 데이터베이스 저널』, 11(3): 117-135.
- 서정우 편저. 2004. 『현대 신문학』. 서울: 나남출판.
- 이재경. 2003. 『한국저널리즘 관행 연구』 서울: 나남출판.
- 조상호. 1999. 『한국언론과 출판저널리즘』 서울: 나남출판.
- 추광영. 1998. 『컴퓨터 활용보도론』 서울: LG 상남언론재단.
- 카스텔, 미뉴엘, 김목한, 박행웅, 오은주역. 2004.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서울: 한울아카데미.
- 케이스, 도널드, 사공복희, 윤정옥역. 2002. 『정보추구행태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기자협회. 2005. 한국기자상 역대 수상작 목록.
 <www.journalist.or.kr/new/main.html?doc=gija&read=kprize&cate=korea/>
- 한복희. 2003. 지식기반 사회에서 이용자 연구의 최신동향. 『문헌정보학회지』, 37(4): 298-310.
- Attfield, S., Ann Blandford and John Dowell. 2003.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riting. A Design Psychology Interpretation of the Problematic Situ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59(4): 430-453.
- Attfield, S., John Dowell. 2003. "Information Seeking Use by newspaper journalists." *Journal of Documentation*, 59(2): 187-204.
- Campbell, F. 1998. "Journalistic Construction of News: Information Gathering." *New Library World*, 98(1133): 60-64.
- Ellis, D, Haugan, M. 1997. "Modelling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Engineers and Research Scientists in an Industrial Environment." *Journal of Documentation*, 53(4): 384-403.
- Garrison, B. 1995. *Computer Assisted Reporting*. Hillsdale, New Jersey: LEA.
- Garrison, B. 1997. "Online Services: Internet in 1995 Newsroom." *Newspaper Research Journal*, 18(3-4): 79-93.
- Millen, D. Susan, M. Dray. 2000. "Information Sharing in an Online Community of Journalists." *Aslib Proceedings*, 52

- (5): 166-173.
- Nicholas, D. 1997. "Assessing Information Needs: A Case Study of Journalists." *Aslib Proceedings*, 49(2): 43-52.
- Williams, P., David Nicholas. 1998. "Journalists, News Librarians and the Internet." *New Library World*, 98(1137): 217-223.

K C I